대한민국 과학축전 광주서 열린다

국내 최대 과학 축제…내달 1일 DJ센터 등서

이공계 진로 엑스포·로봇올림피아드 등 다채

국내 최대의 과학축제로 오는 8월 1일부터 엿새동안 광주에서 열리는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의 행사계획이 확정됐다.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광주시는 'UN이 정한 지구의 해'를 맞아 이번 축전을 통해 지구가 당면한 위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 및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건국 60주년 기념관과 지구촌 곳곳의 선진 과학기술을 선보일 해외관도 설치된다.

특히 이번 축전에서는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가 개막식 사회와 개막 강연을 맡아 청소년들에게 우주개발에 대한 꿈을 심어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 건설'이라는 주제 아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염주체육관에서 분산 개최되는 이번 과학축전에서는 국내외 153여개 학교와 기업, 연구단체가 참여해 510여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사업비는 과학기술부가 10억원, 광주시가 1억5천만원, 광주시교육청이 5천만원 등 모두 12억원이 투입된다. 행사장은 주제관과 전시관, 체험관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시관은 지구관과 해외 참가단체들의 부스가 들어서는 해외관, 과학·예술관,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전시하는 출연연구소관, 광주시의 광산업·자동차 업체가 참여하는 첨단산업관 등으로 꾸며진다.

또 체험관에서는 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시민단체, 기업 등 80여개 단체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주제관에선 국내 과학기술의 역사를 조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한 새 정부의 전략과 비전을 집중 홍보하게 된다.

행사 기간 중 국내 우수과학도서를 전시 판매하는 '사이언스북페어'와 유명 과학자들을 초청해 특강을 갖는 '과학기술앰배서더 특별강연', 이공계로 진출할 청소년들이 진로상담과 직업 흥미검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이공계 진로 엑스포'가 함께 펼쳐진다.

특히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는 지역예선을 거친 600여개 초·중·고교 및 일반인 팀 1천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시는 이번 축제를 '창의적 과학과 남도 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축전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현장과 가사문화권 등 남도 지역의 문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소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광기술원, 광주디자인센터, 한국생산기술원 등 첨단과학산업단지내 연구개발(R&D)클러스터와 나로우주센터 연계 투어 등도 계획하고 있다.

1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과학축전은 그 동안 서울 코엑스(COEX)와 일산 킨텍스(KINTEX) 등 주로 수도권에서 열렸으며 비 수도권에서는 광주시가 포항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광주시는 이번 축전 기간에 약 20만명이 광주를 방문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광태(가운데) 광주시장과 정윤(왼쪽)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과 우승구 광주시부교육감이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 과학문화 진흥과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각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과학문화재단·시교육청과 협약

광주시가 지역 과학문화진흥과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과학문화재단, 광주시교육청과 협약(MOU)을 체결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우승구 광주시부교육감과 정윤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3개 기관은 지역 과학문화 진흥과 우수 과학 인력 양성은 물론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를 배출한 과학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과학축전과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생활과학교실 등 지역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힘을 모으고 과학문화재단이 수행중인 사업중 '과학과 예술의 만남' 등의 행사를 광주에서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광주에서 개최되는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연간 280억원을 들여 과학문화 진흥을 위한 40여건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9일 초복은 '전복 데이'

광주시-전남도 전복먹기 캠페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전복먹기 캠페인을 벌인다.

(사)한국전복협회와 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초복인 19일을 '전복 데이(Day)'로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펴고 있는데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다.

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초복을 하루 앞둔 18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종식 완도군수, 시 간부공무원, 출향인사, 언론인 100여명을 초청, '전복삼계탕 시식회'를 갖는다.

연합회측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광주·전남권의 최대 소비처인 광주에서 '전복먹기 100일 범국민운동'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전국 110개소의 신세계 E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수협마트 등과 판매 협약을 맺어 100일 동안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전남도도 18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목포 평화광장에서 전복 대중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복요리 페스티벌'을 갖는다.

(사)한국전복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배종하 수산정책실장, 전남도 김갑섭 해양수산환경국장, 김영록 국회의원, 정종득 목포시장,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 먹는 날' 지정 선포식과 함께 전복요리 시식회 및 경진대회, 전복 특판행사, 전복나눔행사 등이 열린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귀농학교 '하루주점'

지난 1998년에 개교,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광주·전남귀농학교(운영위원장 나옥주)가 18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타임호프에서 '하루주점' 행사를 마련한다.

광주·전남귀농학교는 '생태가치와 자립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기치를 내세워 그동안 13차례의 생태귀농학교와 3차례의 도시텃밭학교를 열어 귀농 희망자들과 생태적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번 '하루주점' 행사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귀농한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똥꽃'의 저자 전희식씨와 대화시간이 오후 4시부터 마련되며, 귀농자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 전시 및 장터가 함께 열린다. 문의 062-373-6183.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핸드메이드 소품 만들기

16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동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핸드메이드 소품 만들기' 행사에서 이주여성 30여명이 각종 재료를 이용해 액세서리와 가방 등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고의 피서 '지하철 투어'

상무·남광주역 등서 공연…무료 이발·미용 서비스도

"시원한 지하철 타고 무료 미용소에 들렀다가 대합실에서 친구와 장기 한판 두고 공연까지 보고 돌아가면 한낮 더위는 못느껴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초고유가로 인해 은행이나 관공서마저 냉방을 자제하면서 지하철이 도심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16일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에 따르면 지하철의 특성상 역사 및 전동차 내부가 시원해 무더위로 공원 등을 찾지 못한 노인 손님들에게 무료함을 달래는 최고의 피서법으로 '지하철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상무역과 남광주역에서는 요일별로 색소폰, 고전무용, 대중가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5·18 테마열차', 금남로4가역과 도산역의 '지하철 무료 이·미용소', 금남로5가역의 '영화의 거리' 등은 지하철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또 각 역마다 설치된 대형 TV를 시청하며 일행끼리 담소를 나누거나 아예 바둑·장기판을 들고 나와 오락을 즐기는 것은 물론 무료 대여 자전거를 빌려 역 주변에서 운동을 하는 '이열치열족'도 눈에 띄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18 암매장 추정지 2곳 발굴

효령동 야산 묘지 등

광주시가 5·18행방불명자 암매장 제보지 2곳에 대해 발굴 작업을 벌인다.

5·18 행불자소재찾기 사실조사위원회(위원장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는 16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북구 효령동 산14번지 효령공동묘지 내 10여기와 효령동 산143번지 야산 묘지 10여기 등 2곳 20여기에 대한 발굴작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10월 암매장지로 제보받아 시 관계자와 5·18유족회 대표, 행불자소재찾기 사실조사 소위원 등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장소다.

암매장지 발굴과 유골감정에는 전남대 법의학과 박종태 교수, 조선대 치의학과 윤창륙 교수 등 대한법의학회 소속 교수들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01년 5·18구묘역 무연고 묘지 11기 발굴을 시작으로, 2002년 광산구 2곳(소촌동, 삼도동) 등 암매장 제보지 7곳을 발굴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06년 남구 주월동 호반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굴된 유해 292기가 5월 희생자와 관련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발굴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